TV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위험한 여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태양의 신부〉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복희누나〉 40 여유만만	9	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50 지구촌 뉴스	10		30 SBS 뉴스
00 행복한 교실 55 바른말 고운말	10 스포츠 타임 20 낭독의 발견(재)	11	00 세상의 모든 여행 스페셜 〈박상민의 남자 그리고 스코틀랜드〉 3부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뉴스12	00 수목 드라마 〈영광의 재인〉(재)	12	00 MBC 뉴스 15 자원봉사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스페셜	00 SBS 12 뉴스 30 건강클리닉
00 KBS 걸작선 〈사랑을 믿어요〉(재)		1	05 주말연속극 〈천번의 입맞춤〉(재)	30 한국의 숲 스페셜
00 KBS 뉴스 10 2011 회장기 전국 유도대회	10 호루라기(재)	2		00 SBS 뉴스 10 세상발견 유레카(재)
	00 KBS 뉴스타임 05 로봇 찌빠(재) 35 출발! 모나리자호 미술탐험대	3	00 키즈 어드벤처 〈여기가 어디야?〉 50 MBC 뉴스	10 인문학 열전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네트워크 특선 〈소화제 2〉	00 TV 유치원 30 파워 마스크	4	00 뽀뽀뽀 아이조아 30 안녕 토토비	00 쥬블스 30 꾸러기 탐구생활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5	00 주말특별기획드라마 〈애정만만세〉(재)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다큐로 만나는 세계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컬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6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6	00 6시 뉴스매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30 생방송! KBC투데이
00 KBS 뉴스 7 30 스카우트	45 스타 인생극장 〈김태원〉	7	45 일일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내딸 꽃님이〉
25 일일연속극 〈당신 뿐이야〉	20 세계는 지금 55 비타민	8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며느리〉 55 MBC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한밤의 TV 연예
00 KBS 뉴스 9	55 수목 드라마 〈영광의 재인〉	9	55 수목 미니시리즈 〈나도, 꽃〉	55 SBS 대기획 〈뿌리깊은 나무〉
00 환경스페셜 50 아름다운 사람들		10		
00 KBS 뉴스라인 40 수요기획	05 추적 60분	11	05 황금어장	15 테마스페셜
25 KBS 뉴스 35 클래식 오디세이	05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TV 특강	12	20 MBC 뉴스 24 35 자원봉사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15 TV백과사전 25 나이트라인 35 휴먼다큐 나눔

EBS

06:00 극한직업
06:30 직장학개론
07:00 오스카의 오아시스
07:10 제로니모의 모험
07:35 꼬마기관차 토마스와 친구들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꼬마버스 타요
08:35 떼굴떼굴 미술상자
08:45 깨미
09:00 방귀대장 뿡뿡이
09:10 부릉! 부릉! 브루미즈
09:25 뚝딱뚝딱 밥 아저씨
09:40 변신로봇 5
10:00 최고의 요리비결
10:30 60분 부모〈정리도 능력이다〉
11:30 공부의 왕도
12:00 EBS 정오뉴스
12:10 교육, 화제의 인물
13:00 세계테마기행 〈아프리카 베냉 3부〉
13:40 직장학개론(재)
14:10 EBS 다큐프라임
15: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중급)
15:30 미스 스파이더와 개구쟁이들
15:55 딩동댕 유치원(재)
16:15 깨미(재)
16: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6:45 방귀대장 뿡뿡이(재)
16:55 꼬마버스 타요(재)
17:15 떼굴떼굴 미술상자(재)
17:25 키득키득 실험실
17:35 피들리팜
17:45 부릉! 부릉! 브루미즈(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
18:10 바두와 친구들
18:15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2
18:20 사회가 쑥쑥!
18:3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3
18:35 올리비아
18:4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4
18:50 와글와글 친구들
19:00 오스카의 오아시스
19:10 제로니모의 모험
19:35 스톰 호크
20:00 서바이벌 쇼 영어 완전정복
20:30 EBS 뉴스
20:45 EBS 채널e
20:50 세계테마기행
21:30 한국기행 〈군산 3〉
21:50 EBS 다큐프라임
22:40 극한직업
23:10 다큐 10+〈자연〉
00:00 지식채널e
00:05 공부의 왕도
00:35 글로벌 특강-테드

EBS플러스1

04:10 EBS 포스 〈김경한의 적분과 통계〉
05:00 EBS 기본과 특별한 〈곽정원의 수학(하)〉
05:50 〃 〈영문법 즐겨찾기〉
06:40 EBS 포스〈이하영의 수학 I〉
07:30 EBS 포스 〈최수일의 기하와 벡터〉
08:20 EBS 탐스런 〈민병권의 세계지리〉
09:10 〃 〈권유상의 법과사회〉
10:00 선생님 선생님 우리선생님
11:20 EBS 내신 6감 〈정승제의 수학(하)〉
12:10 EBS 포스(재)
〈이은주의 수학II〉
13:00 〃 〈이채형의 미적분과 통계 기본〉
14:00 〃 〈최수일의 기하와 벡터〉
15:00 EBS탐스런 〈채수원의 화학 I〉
16:00 〃 〈이희나의 화학II〉
17:00 기본과 특별한 (재) 〈곽정원의 수학(하)〉
18:00 〃 〈영문법 즐겨찾기〉
19:00 EBS탐스런(재) 〈민병권의 세계지리〉
20:00 〃 〈권유상의 법과사회〉
21:00 EBS포스〈이하영의 수학 I〉
22:00 〃 〈이은주의 수학II〉

EBS플러스2

08:00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08:30 초등 수학-매스 트레이닝
09:00 EBS TV 중3 〈영어〉
09:40 〃 〈과학〉
10:20 EBS 중3 퍼펙트 체크업 〈사회·국사〉
11:00 Magic 중학영문법 Level 1
11:50 EBS TV 중2 〈문학2〉
12:30 〃 〈과학〉
13:10 EBS 중2 퍼펙트 체크업 〈수학 2-2〉
13:50 중학영어독해 Level 2
14:30 초등 5학년 영어 Fly High
14:50 EBS 클립뱅크
15:10 사회가 쑥쑥!
15:20 초등 기말 학업성취도 평가대비 〈사회 3-2〉
15:50 〃 〈사회 4-2〉
16:20 〃 〈사회 5-2〉
16:50 〃 〈사회 6-2〉
17:20 초등 수학-매스 트레이닝
17:50 EBS TV 중1 〈수학1-2〉
18:30 〃 〈사회〉
19:10 EBS 중1 퍼펙트 체크업 〈과학〉
19:50 EBS TV 중2 〈문학2〉(재)
20:30 〃 〈과학〉(재)
21:10 EBS TV 중3 〈영어〉(재)
21:50 〃 〈과학〉(재)
23:10 Magic 중학영문법 Level1

"어느덧 마흔둘…이젠 액션배우 꿈꿔요"

김혜선 '완벽한 파트너'로 17년만에 영화 복귀

1980년대 하이틴 스타였던 김혜선(42). '대장금'(2003), '동이'(2010), '신기생뎐'(2010) 등 수십 편의 드라마에서 맹활약했지만 지난 10여 년간 영화와는 유독 인연이 멀었다.

고교생이던 1986년 '춤추는 딸'로 데뷔한 그는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 8편의 영화에 출연했으나 1994년 이래로 영화와 연을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혜선이 박헌수 감독의 '완벽한 파트너'로 영화에 복귀했다. 최수종과 호흡을 맞춘 '키스도 못하는 남자'(1994) 이후 17년 만이다.

"1995년 결혼한 후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97년에 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더군요. 뭐가 되든 일단 연기를 시작하자고 생각했고 때마침 드라마 출연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시작하게 됐죠."

그는 연예계 복귀 후 영화를 하고 싶었지만 출연제의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탤런트라는 이미지가 고착되면서다. 게다가 30대 후반부터는 어머니 역할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엄마 역할로 소비되다 보니 "나도 여자인데…"라는 상실감이 가끔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럴 즈음 박헌수 감독으로부터 '완벽한 파트너'라는 작품을 제안받았다. 작품은 재밌었지만, 노출 수위가 높았다.

"겁부터 났어요. 수많은 노출신을 어떻게 감당하며 찍을까 고민이 들었죠. 드라마에서는 단아하고 얌전한 이미지였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들어온 시나리오였고, 역할 자체에 욕심이 나기도 했죠. '연기자로서 노출 때문에 망설인다면 창피한 거다. 일단 도전해 보자!'라고 결론지었습니다."

3년간 사귀어온 장현수 감독의 조언도 힘이 됐다. "'배우가 뭘 망설이느냐? 배우가 연기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냐'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조금 멋있어 보였어요.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용기가 났죠. 물론 감독님이 반대해도 제가 하고 싶다면 어떻게든 그를 설득했을 것 같아요." (웃음)

'완벽한 파트너'는 선생과 제자 사이에 벌어지는 농밀한 연애담을 코믹한 터치로 그린 성인용 로맨틱코미디다. 김혜선은 총기 있는 제자를 유혹해 그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요리 연구가 희숙 역을 맡았다.

어떤 영화를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자 "'오아시스'(2002)에서 문소리가 했던 공주 역 같은 강한 캐릭터"와 "액션영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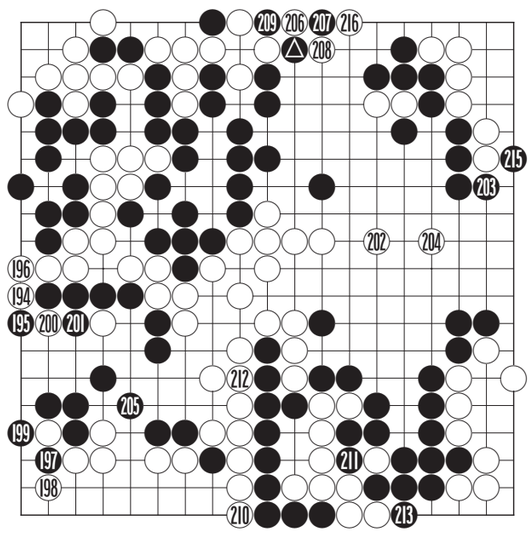
"하지원 씨가 나왔던 액션 영화들처럼, 액션 영화를 몇 편 해보고 싶어요. 이제 몇 년 있으면 찍지도 못할텐데 조금 고되더라도 몸을 사용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작품을 꼭 찍고 싶어요. 액션 배우를 꿈꾸고 있어요."(웃음)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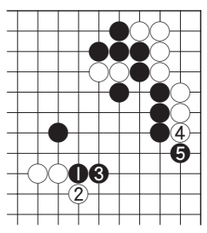
제20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아쉬운 패배'

4회전 1국 8보(194~216)

白 정장효 5단 (포스코)　黑 조영배 5단 (주택관리사회)





〈참고도〉

하변 싸움에서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린 조영배 5단이 쓴맛을 다시며 흑 93으로 상변을 막아 계가를 노리고 있으나 이미 형세는 백 쪽으로 크게 기운 느낌이다. 백은 전체의 실리가 50여집에 육박하는 반면 흑은 많이 봐줘봐야 반면으로도 이기기 힘든 형국으로 보인다.

백 194로 젖혀이은 수는 여유가 부른 실수로 흑 197과 교환되어 손해였다. 이 수로는 먼저 우변 203 자리에 밀었으면 차이가 커졌을 것이다.

흑 201이 아쉬운 수였다. 이 수로는 마지막으로 '참고도'의 흑 1로 중앙을 막아 승부를 걸고 싶다. 이렇게 둔다고 해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으나 이렇게 중앙이 커지게 되면 백도 계가가 흔들리게 돼 겁 나는 수단이다.

백 206에 흑 207로 패로 받은 것은 던질 곳을 찾은 것. 조영배 5단이 여러번 찬스를 놓치고 만 아쉬운 한판이 되었다.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6일(음 10월 21일 乙亥)

子 36년생 이해 관계를 따지다가 소원해 질 수 있다. 48년생 지인과 우의를 회복한다. 60년생 불의를 보고도 잠자코 있다면 겁쟁이 소리를 듣겠다. 72년생 운로와 상호 관계를 살핀 후 동업 여부를 결정하라. 84년생 섣불리 속단하면 곤란해진다. 행운의 숫자 : 10, 73

丑 37년생 가능성이 낮은 일에 현혹되면 안 된다. 49년생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문의할 수 있다. 61년생 인성 교육은 반감을 사지 않도록 해야하느니라. 73년생 가정의 불협화음을 중후한 덕으로써 진정시켜라. 85년생 어리석게 속단하지 않아야겠다. 행운의 숫자 : 62, 02

寅 38년생 과거의 성과를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좋겠다. 50년생 비교 평가하려 하지 말고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62년생 제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74년생 시작이 의외로 더딜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6, 47

卯 39년생 베푸는 기쁨의 진정한 의미를 실감할 수 있다. 51년생 능력에 맞는 계책과 방안이 필요하다. 63년생 상반된 사고 방식이 있는 경쟁자를 주의하라. 75년생 진심은 진심으로 통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6, 79

辰 40년생 허황된 문서에 눈이 어두워질 수 있음이라. 52년생 아침의 근심이 저녁에 해결되어 기쁨이 넘친다. 64년생 필요한 정보는 꼭 확보해야 한다. 76년생 갈등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라. 행운의 숫자 : 48, 05

巳 41년생 몹시 화가 날 일이 있지만 차분하게 분석해보면 진정될 것이다. 53년생 평온함에서 오는 휴식을 만끽해도 좋다. 65년생 체계적인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 77년생 자녀에 관련된 일이 생기나 어렵지는 않다. 행운의 숫자 : 66, 42

午 42년생 희망의 무지개가 걸려 있다. 54년생 연락이 두절되었던 이로부터 소식이 온다. 66년생 지식과 정보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78년생 과거의 일이 현재와 관련하여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7, 92

未 43년생 단순한 근거로 판단하면 착오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라. 55년생 바빴던 일손을 놓고 뒤를 돌아보는 것도 좋으리라. 67년생 가급적 관용의 덕을 베풀어라. 79년생 오늘 하루는 외근보다는 내근을 하자. 행운의 숫자 : 74, 51

申 44년생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56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제거해 버려라. 68년생 약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80년생 조용한 호수에 돌이 떨어지는 격이나 곧 잠잠해지리라. 행운의 숫자 : 08, 99

酉 45년생 뜬소문에 좌우될 필요는 없다. 57년생 처음에는 당황하나 머지않아 적응하게 된다. 69년생 이론보다는 경험을 우선 적용해야 하리라. 81년생 허황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31, 78

戌 46년생 베풀면 순순히 따르리라. 58년생 안도의 숨을 돌리면서 내일을 위해 재충전하게 된다. 70년생 무의미한 일은 미련을 버리고 빨리 접어야 한다. 82년생 고민거리는 함께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행운의 숫자 : 14, 69

亥 47년생 인내의 세월들이 쌓여서 진정한 실력자가 될 것이다. 59년생 가치관에 비춰봤을 때 판단이 용이하다. 71년생 지극히 가능성이 낮으니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83년생 다시 점검해 봐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45, 27

www.cafe.daum.net/sajoo114 ☎010-9790-8237

우리말 나들이

제출하다/접수하다

다음 맞는 문장에 ○, × 표시를 해 봅시다.

길동엄마, 길동이는 이번에 어느 대학교에 수시 원서를 접수했나요?( )
길동엄마, 길동이는 이번에 어느 대학교에 수시 원서를 접수시켰나요?( )
네, 00대학교에 수시 원서를 접수했어요.( )
네, 00대학교에 수시 원서를 접수시켰어요.( )

'접수(接受)하다'는 제출하는 서류나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입학원서나 입사서류를 학교나 회사에 내는 사람은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하거나 접수시키는 것이고, 신청을 받는 사람이 접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동엄마, 길동이는 이번에 어느 대학교에 수시 원서를 접수시켰나요?"가 맞고, "네, 00대학교에 수시 원서를 접수시켰어요."가 맞습니다.

'00고등학교의 이번 대학입시 수시전형은 예년에 비해 일부 지원자만 원서를 접수해 대체로 한산했다.'라는 잘못 쓴 예이고, '이번 과학캠프는 2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처럼 써야 합니다.

〈전남언어문화교육 연구회〉

굿모닝 잉글리쉬

Smoking isn't allowed
흡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t the movies)
A : Would you mind putting out your cigarette?
B : I'll just finish smoking this one, OK?
A : Smoking isn't allowed in movie theaters.
B : Oh, I'm sorry.

(극장에서)
A : 담배를 좀 끄시겠습니까?
B : 이 담배 거의 다 피워가요, 됐지요?
A : 극장 안에서 흡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B : 아, 죄송합니다.

* 소방대원은 신속하게 불을 끕니다.
= The fireman quickly put out the fire.
* allow + 사람A + to + 동사원형~
= A가 ~하는 것을 금하다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니하오 쭝구워

感情深一口闷，感情浅舔一舔
사랑하는 만큼 마시기

술자리에서 건배하면서 '사랑하는 만큼 마시기'라는 말을 하면 술 못 마시는 사람도 억지로 마십니다.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 눈꼽 만큼도 없으면서도 '사랑하는 만큼 마시기'라는 말을 하면 마시더라구요. 중국어에도 이와 유사한 원샷 권주 표현이 있습니다. "아끼는 마음(感情)이 깊으면(深) 한입에 털고(一口闷), 마음(感情) 없으면(浅) 입만 갖다대기(舔一舔) gǎnqíng shēn yìkǒumèn, gǎnqíng qiǎn tiǎnyītiǎn"

저는 무슨 술이라도 첫잔은 원샷합니다. 소주, 맥주, 양주, 와인, 막걸리, 바이지우, 500cc 생맥주까지 대소불문에 청탁불문 모두 원샷합니다. 첫잔에 진짜 술맛이 들어 있거든요. 저는 마실 수 있기에 그래서 첫잔을 들고 자신있게 외칩니다. 感情深一口闷 이라고.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오하요우 니혼고

申し譯ございません。
정말 죄송합니다

A : 課長、これで宜しいですか。
B : この部分の操作の順序が間違っていますよ。
A : あ、そうですか。申し訳ございません。
またやり直します。
B : 先 私が説明したとおりに、やってください。

A : 과장님 이걸로 괜찮을 까요.
B : 이 부분의 조작순서가 틀렸습니다.
A : 아, 그렇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B :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해주세요.

[문법정리]
⊙ 동사의「~た형」+ とおりに (~한대로)
▸ 私がやったとおりに、やってください。
= 제가 한대로 해 주세요.
▸ 今、私が書いたとおりに、書いてください。
= 지금 제가 쓴 대로 써주세요.

〈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